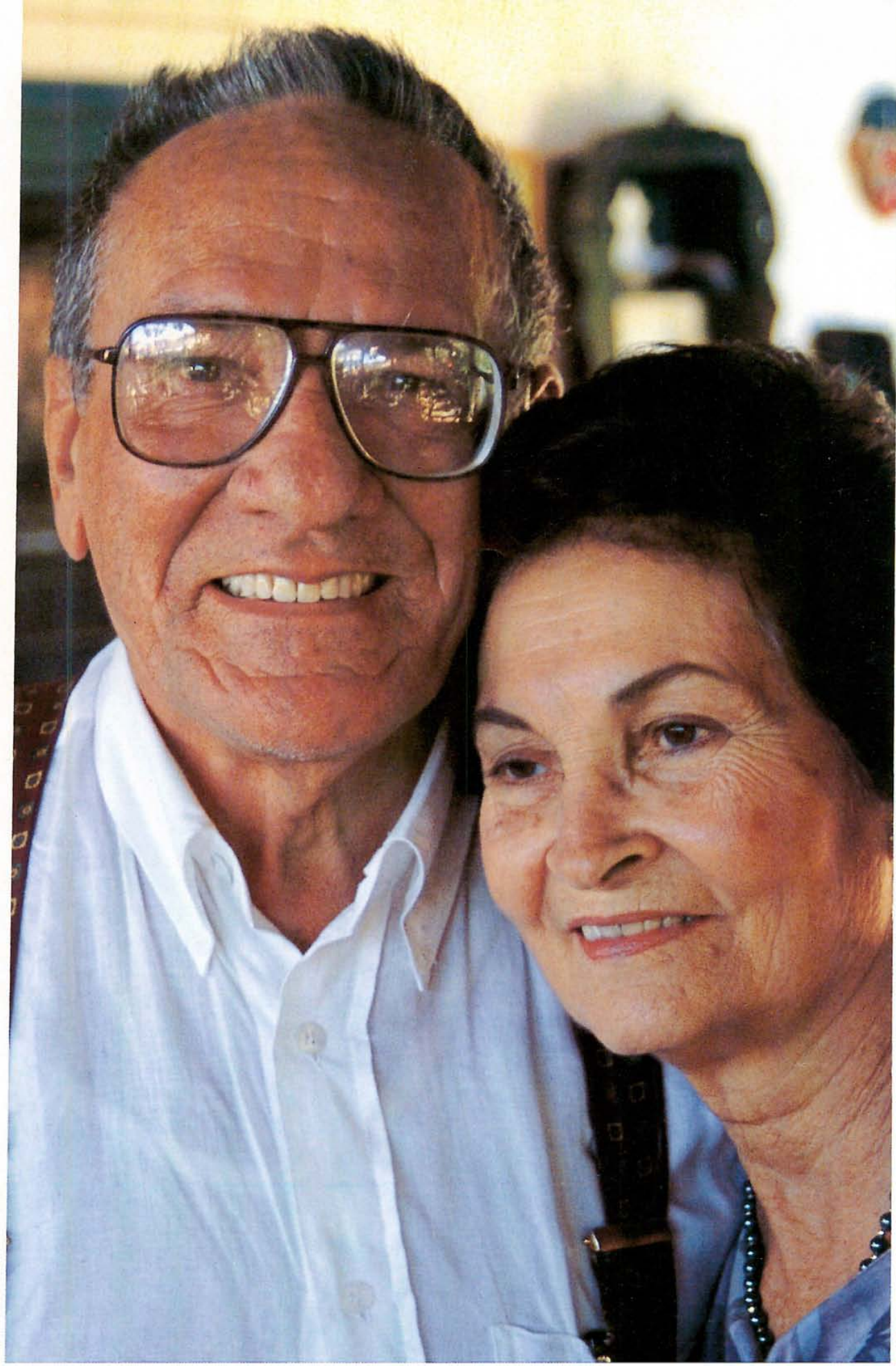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벗 11 1997

별책 목록 : 어린이란





# 어린이의 신앙



**앞 표지**  
 브라질의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 밀톤과 이레네 소아레스(앞 표지)는 가족과 친구들이 수확하게 된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브라질의 투도 뱀", 34쪽 참조  
 (사진 촬영: 돈 엘 설과 데이비드 미첼)

**어린이란 표지**  
 필리핀의 여섯 살난 엘라 마에 엘 올리바레가 그린 초기 필리핀인 개종자 나인 형제와 그의 가족 "개척자가 램", 14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6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고든 비 횡클리 대관장
- 26 새로운 와드에 적응하기 조앤 독시
- 28 정직하게 거래함 앨런 브이 핑크
- 34 브라질의 투도 뱀 돈 엘 설과 데이비드 미첼

## 청소년란

- 10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마이클 그리프스
- 12 모든 것을 잃고서
- 33 압박감에서 해방됨 테레사 현세이커

##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15 물문 메시지: 하늘의 관문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지식의 말씀

##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탐험: 평원을 횡단함 세리 존슨
- 5 심심풀이
- 6 친구가 친구에게: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 8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겠다 캐런 애쉬튼
- 10 케빈의 생일 선물 티모시 에스 화이트
- 14 개척자: 개척자 150주년 어린이 미술 전시회



12쪽 참조



16쪽 참조



28쪽 참조



어린이란, 12쪽 참조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A 피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올 롱 패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스, 달린 에이치 옥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라, 린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러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젠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니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켈런 올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다윈 워커  
편집 보조: 케니퍼 그라우트  
편집/제작 부장: 에리엔 마틴데일  
제작 보조: 배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영 엠 가와시카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켈렌  
디자인: 제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더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랜슨

통 권: 제 300호, 제 34권, 제 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06  
발행일: 1997년 11월 1일(월요일)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운동 7번지

인쇄인: 심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인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연이 승인-8/94 번역 승인-8/94 November,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81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말리만,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물 배부 센터(☎738-6832, 형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3223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기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아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칠레 오소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저의 동반자는 1987년 1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한 특별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도록 도와주시지만, 결코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2쪽)

선교사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고 더욱 그분처럼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사랑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을 읽은 뒤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만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드야테 자매  
칠레 오소노 선교부

**귀중한 재산**

세이또 노 미찌(일본어 판)을 읽는 것은 저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개종한 이래 27년이 된 지금까지 저는 매달 이 잡지를 모아 왔습니다. 저는 매번 새로 발간된 잡지를 읽고 그것을 이전의 것들과 비교해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급속히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루 후쿠오카  
일본 교토 스테이크  
히코네 와드

**행복을 나눔**

저는 1994년 2월에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이래 저는 행복을 느껴 왔으며 안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과 보살핌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아픔과 슬픔의 장소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간증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교회에서 갖는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병원 관리소의 승인을 받아 저는 병원 종업원과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대기실에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놓아 둡니다.

속죄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 페난다 고  
포르투갈 알가브 지방부  
파로 지부



**예언자의 약속**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십시오”를 1996년 5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디모테후서 1장 8절의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를 읽어 왔으며 우리 예언자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리타 살메네 가리도  
스페인 자엔 지방부  
그라나다 제2지부







#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 중 하나에서 주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창세기 4:9)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베냐민 왕은 “너희는... 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기를 가르치며”(모사이야서 4:15)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참으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필요 사항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사항은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윌리 손수레 부대가 꿈쩍못하게 된 소식이 솔트레이크에 전해지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연차 대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필요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 중 하나가 봉사라는 것을 압니다.

베냐민 왕은 “너희가 서로 도움고자 힘쓰지 아니하겠느냐?”(모사이야서 2:18)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17)는 것을 배울 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갈라디아서 5:13~14 참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문 밖에서 앓은뱅이 거지가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사도행전 3:6)라고 했던 위대한 메시지를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교리와 성약 81편에서는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쳐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5절)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은 우리 모두가 어떤 것으로 판단 받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 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40)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1973년 4월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한 가지 훌륭한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성전 헌납 직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서너시쯤 되었습니다. 저는 꿈이 아닌 시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는 저의 생애를 통해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큰 영적인 모임을 보고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서 있었으며 한 번에 두세 명의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 흔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위대한 원리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사건을 살펴 봅시다.

손수레 개척자 부대 중 하나였던 윌리 부대의 부대장 존 치슬렛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9월 1일인가 2일 경에 [포트] 라라미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식량들은 그 곳에 없었다. 윌리 대장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 및 전망을 살펴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모임을 소집했다. 현재의 우리 여행 속도와 최근의 밀가루 소비량으로 볼 때 목적지로부터 560킬로미터 가량 되는 지점에 이를 때 식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식량 배급을 하루에 450그램에서 340그램으로 줄이고 더욱 빨리 여행하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라라미에서 인디펜덴스 록까지 계속 이런 비율로 배급을 받았다.

“이 때쯤 윌리 대장은 [윌라드] 리차즈 사도로부터 우리가 사우스 패스에 이르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보급대가 우리를 마중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 주는 편지를 받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조사해 보았을 때 그 곳까지 이르기 전에 다 없어질 분량이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밀가루 배급량을 계속 더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었다. 그때의 밀가루 배급량은 하루에 평균 1283그램 정도였다...”

“우리가 라라미를 떠난 이래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밤이 몹시 추워지게 될 무렵에야 우리는 스위트 워터 강가에 다달을 수 있었다. 우리 앞에 놓인 로키 산맥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슭이 거의 눈으로 덮여있음을 보여주었고, 매일마다 우리 주위에 내려앉을 듯한 구름 속에서 폭풍우가 다가오는 징후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지닌 5킬로그램의 옷가지와 침구는 이제 편안함과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밤마다 추위를 겪었다. 가없는 성도들은 아침이면 강건하고 상쾌하고 활기차게 새로운 고된 날의 어려움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일어나는 대신, 야위고 추위에 마비된 상태로 텐트 밖으로 기어나와 우리의 여행을 완수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활기를 잃고 의기가 소침해 있었다.





손수레 부대의 위치를 알기 위해 선발 구조대가 파견되었다.  
영 대관장에게 보낸 급보에서 구조대의 대장은 그들이 본 윌리 부대의 심각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광경은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와 식량 부족 그리고 무리한 노력에서 비롯된 심한 피로는 이내 영향을 미쳤다. 우리 일행 중 나이 많고 허약한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기백과 용기를 잃자마자 그들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름이 다하면 램프의 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생명이 끝났다. 처음에는 죽음이 느리고 불규칙적으로 찾아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더욱 자주 찾아 들어서, 우리는 곧 야영지에 한 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을 묻지 않고 떠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죽음은 나이 많고 허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얼마 안되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기 시작했다... 많은 아버지들이 죽기 직전까지 어린 자녀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끝었다. 나는 어떤 아버지들이 아침에 수레를 끌면서 그날 하루 동안 기진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여행했다. 가끔씩 아주 많은 거리를 나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강한 바람은 우리를 맹렬히 몰아쳤다...”

“그날 아침, 눈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깊이 쌓였다. 우리 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멀리 길을 벗어났으며 그중 몇 마리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나쁜 것은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날 저녁에 죽은 것이다.

“폭풍우가 치기 전의 아침, 아니 그보다 폭풍우가 치던 그날 아침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이 숙명적인 아침에는 나누어 줄 밀가루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윌리 대장이 궁핍한 경우를 대비하여 포트 라라미에서 구한 딱딱한 빵이 한 통인가 두 통 정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대원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사방에 3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로 눈이 쌓여 있었고, 식료품은 바닥이 났으며, 많은 대원들이 병들었고, 소들은 죽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보급대가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굶주리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나누어준 빈약한 양의 딱딱한 빵과 형편없는 쇠고기를 첫째 날에 거의 다 먹어 버렸다.

“우리는 더 많은 소들을 도살해서 고기를 나누어 주었으나 빵없이 먹었으므로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였고, 이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도움을 주기보다 더욱 해를 끼쳤다. 이 무서운 병은 그 3일 동안에 우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탈진하여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그 3일간을 떠올리면 나는 마음을 가눌 수 없다. 그 끔찍한 3일을! 그 기간 동안 나는 배부 책임을 맡은 몇 가지 물품들을 나누어 줄 곳을 알기 위해 병자들과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과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연로한 이들을 찾아 다녔다. 나는 이전에 그토록 심한 굶주림을 본 적이 없었



으며, 다시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sup>2</sup>

그 부대의 일원이었던 잭슨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9시 경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침구가 굉장히 부족해졌으므로 옷을 입고 잤다. 내 생각에는 한밤중이 될 때까지 잤던 것 같다. 몹시 추웠다. 날씨가 더욱 추워졌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지 알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그의 몸에 손을 대어보고서 나는 끔찍하게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했다. 남편이 죽은 것이다. 나는 텐트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시신 옆에 홀로 남아있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 그 음울한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해가 떠오르자 우리 팀의 남자들 몇 명이 남편을 묻기 위해 준비했다. 그것을 매장장 장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남편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 남편은 옷을 조금 밖에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남편의 시신을 담요로 둘러싼 후,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열세 명의 시신 더미에 놓고 눈으로 덮었다. 땅이 너무나 단단하게 얼어 붙어서 무덤을 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채로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올 때까지 그 곳에 남겨졌다...”

“남편이 죽은지 며칠이 지난 뒤에는... 남자 대원들의 수가 죽음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었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은 허약하고 야위어서 야영을 할 때는 기둥을 올리고 텐트를 설치할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로지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별을 벗 삼은 채 노숙을 하게 되었다. 바닥에는 눈이 수십 센티미터 깊이로 쌓여 있었다. 밤에는 살을 에는듯이 추웠다. 나는 바위 위에서 한 아이는 무릎에 앉히고 두 아이는 내 양 옆에 앉힌 상태로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을 지냈다.”<sup>3</sup>

이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선발 정찰대의 일원이었던 그랜트 대장으로부터 급보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 급보를 전달하는 아드님 조셉 에이와 가야 [형제]에게서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관장님은 오륙 백 명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손수레를 끌면

서 눈과 진흙을 통과하느라 기진 맥진하여 길 옆에 쓰러져 있고, 추위에 떨며, 어린이들은 울고, 그들의 사지는 추위로 뻣뻣해져 있으며,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어떤 사람들은 눈과 얼음 위에서 맨발인 채로 있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광경은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sup>4</sup>

1856년 10월 5일에 솔트레이크에서 열렸던 연차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와 함께 평원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1,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그 분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감독님들을 소집하겠습니다. 60마리의 좋은 노새와 12~15대의 마차를 보내기 위해 내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황소는 보내지 말고 좋은 말과 노새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지역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또 마차를 몰 사람 이외에 마차 모는 것을 도와줄 사람 40명과 밀가루 12톤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평원에서 마차를 제대로 몰 수 없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몰고 있는 마차들을 맡기 위해 마차를 몰 줄 아는 40명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60내지 65쌍의 건강한 노새나 말과 마구, 마구용 가로 막대, 멩에, 발받침대, 말을 마차에 맬 사슬 등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종교와 서약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얼른 가서 평원에 계시는 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현세에서 요청 받는 것들이나 현세적인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들도 여러분에게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sup>5</sup>

한편 윌리 부대는 보급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윌리 대장과 다른 한 사람을 파견하여 보급대를 찾아서 꼼짝 못하게 된 성도들에 대한 구조 임무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 치슬렛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습니다.

“윌리 대장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저녁(10월 21일)에 해가





그 수난자들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마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더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영 대관장은 성도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간호해주도록 이야기했다. “그들을 여러분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친자식과 똑같은 감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 언덕 너머로 아름답게 넘어갈 때 우리 캠프 바로 서쪽 언덕에서 각각 네 필의 말이 끄는 포장 마차 여러 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소식은 삼시간에 캠프 안에 전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마차들을 보기 위해 떼지어 몰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차들이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충실한 대장이 보급대보다 조금 더 앞서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기쁨의 함성이 솟구쳤다. 긴장한 남자들이 주름지고 햇볕에 탄 뺨 위로 눈물이 거침없이 흐르도록 울었으며, 어린 아이들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 주변에서 거리낌 없이 기쁘게 춤추었다. 모두가 기쁨에 겨워 자제력을 잃었으며 구조대가 캠프로 들어오자 자매들은 그들을 껴안고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sup>6</sup>

후에 그 수난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더욱 가까워졌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시 성도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 혼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훌륭하고 안락한 집을 가진 가족들에게 그들을 각각 맡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제 앞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과 간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이주자들을 간호하고 도우며 현명하게 약과 음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 신앙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도를 돌보는 것에 포함되기 때

문입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집으로 가서 곧 도착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씻기고 간호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후 모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곧 이곳에 도착할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후 내내 이곳에 머물며 기도했다라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위해서보다 한 접시의 푸딩과 우유 또는 구운 감자와 소금을 위해 제가 더 많은 것을 주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도는 훌륭한 것이지만 구운 감자와 푸딩과 우유와 필요할 때는 기도가 음식을 대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의무를 적절한 우선 순위에 따라 수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발이 발목 위나 무릎까지 얼어 버린 사람들과 손이 얼어 버린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친자식과 똑같은 감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현세적인 구세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가 우리를 모두에게 이 시대에 평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합당한 모든 청남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복음 선교사로 불리지 않았더라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업보다 더 훌륭한, 세상의 모든 대업 중 가장 훌륭한 대업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1996년 10월 연차 대회에



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 연단에서 많은 훌륭한 설교가 주어졌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영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설교 이상으로 웅변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고통 받던 성도들과 그들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또, 구조 이야기도 거듭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척 시대가 다 지나간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곳 시온까지 오는 동안 눈에 간혀 동상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환경에서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궁핍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도 고통, 역경, 외로움, 두려움 등으로 절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누군가가 굶주렸다면 손을 뻗쳐 먹이거나 돕고 용기를 주며, 진리와 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영을 양육해야 할 크고 엄숙한 임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젊은이가 정처없이 방황하고 마약, 불량배, 부도덕 혹은 이에 따르는 여러 문제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과 사랑에서 우리나라는 격정을 해주길 바라는 미망인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뻗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의 식탁에 돌아와 성찬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들 각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 교회의 품 안에 안기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라며, 또 간구합니다. 그 곳에서 강한 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여 행복하고 건설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큰 사업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

브리감 영 대관장이 성도들에게 윌리 손수레 부대의 개척자들을 구하도록 호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대업 중 가장 훌륭한 대업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을 데려오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 주

1. 성도의 벗, 1974년 3월호, 45쪽
2.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01~105쪽 인용
3.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11~112쪽
4.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16~117쪽
5.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20~121쪽
6.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06쪽
7. 리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1960년), 139쪽
8. 앤사인, 1996년 11월호, 86쪽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참으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2. 경전과 교회사에는 위대한 봉사의 원리를 보여 주는 많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3. 오늘날 핑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권고하십니다.
  - 정처없이 방황하며 마약과 불량배와 부도덕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는 젊은이.
  - 친절한 말을 간절히 바라는 미망인과 홀아비와 독신 성인들
  -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빈곤한 사람들
  -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고무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







#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마이클 그리피스

그 어린 소년의 질문은 실로 나를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다.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나는 아르헨티나의 중부 어느 마을 변두리의 한 더러운 도로가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나의 첫 선교 지역이었다. 나의 동반자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앉아서 선교사 토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동반자는 시간을 끌고 있었다.

내가 막 다섯 번째 토론을 공부하려 할 때, 나는 한 작은 소년이, 마치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길을 가로질러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왜 저렇게 달리는 거지? 뭔가 심각한 일인가? 나는 궁금해졌다. 그때 나는 그 소년을 뒤쫓아오는 그 두려운 공격자를 보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소녀였다. 아마 소년은 틀림없이 그 소녀에게 붙잡혔을 때의 끔찍한 일들을 계산한 모양이었다.

잠히기 직전에 소년이 나를 보았다. 분명 소녀는 정장 차림의 이 미국 신사가 있는 데까지 감히 소년을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었다. 소년의 생각이 옳았다. 텅 빈 거리에서 금방 숨을 곳은 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열 살짜리 그 소년은 내 뒤

로 몸을 숨겼다.

소년은 내가 들고 있는 다섯 번째 토론을 잡아채더니 “그리스도처럼 생활함”이란 제목을 읽었다. 이어서 우리는 갑자기 복음 토론을 나누게 된 셈인데, 그 후 그가 한 말은 확실치는 않았지만 짐작컨대 “그건 그렇고, 아저씨는 누구예요?”라고 질문했던 것 같다.

나는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소년의 심오한 응수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여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래,”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르는 채 놀려고 달려가는 그 소년을 보며 내가 대답했다.

나의 머리에는 그 소년의 말이 지워지지 않았다.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스페인어로 한 소년의 말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소년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거나 평범한 질문을 한 것이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나는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

그런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나는 우연히 교리와 성약에서,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 학교에서 읽기 위해 기록한 다음의 인사말을 발견했다.

“곧 그대는 형제 또는 형제들인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성약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그대에게 인사하노라. 이 성약에 따라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는 결의로써 그대를 동지로 받아들이나니,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켜 생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슬로 묶여 그대의 친구며 형제가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133)

나는 친구의 정의를 이처럼 잘 표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친구가 되기로 결의한 형제들이며 이 기도는 친구가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 인사말에 언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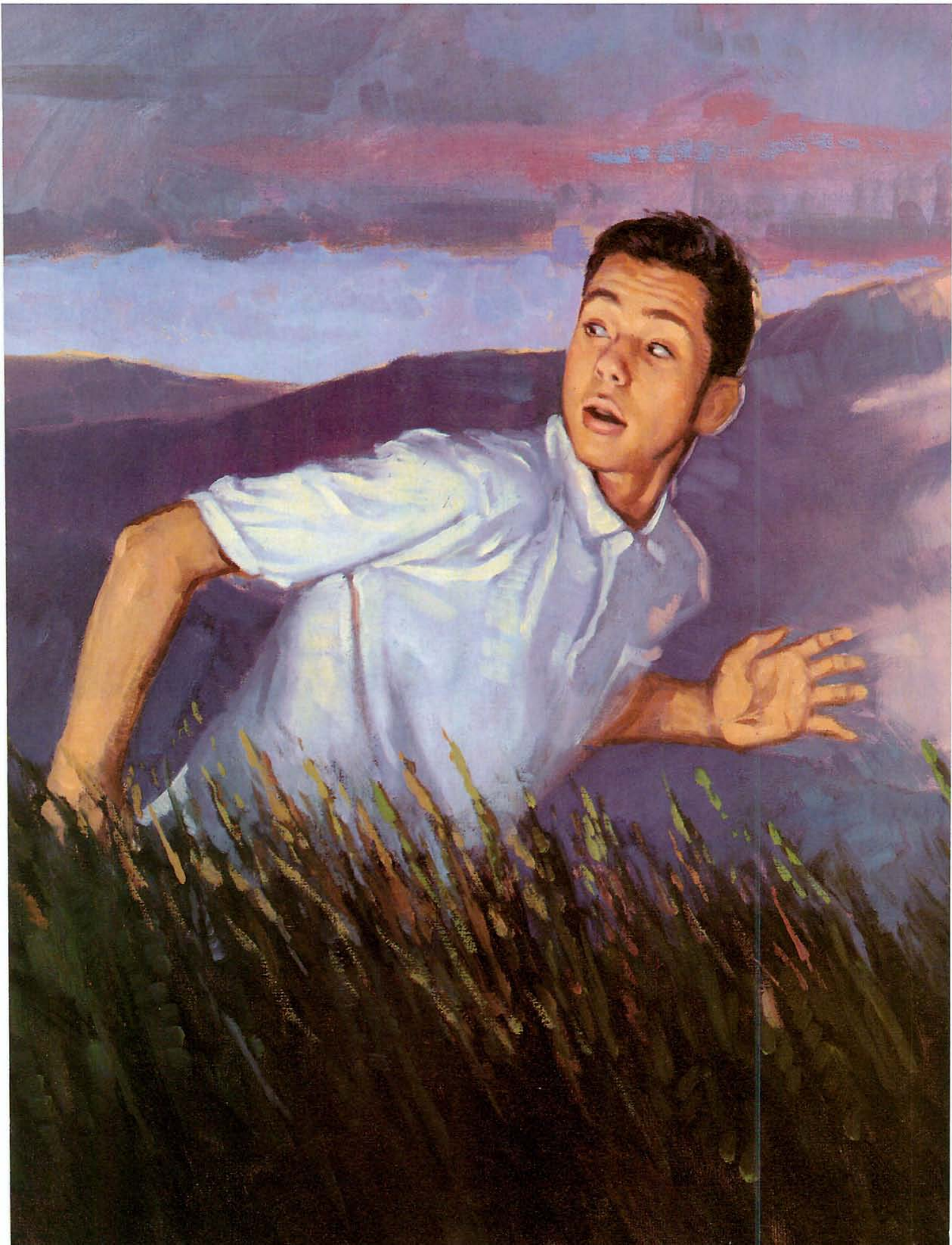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많은 자질들이 내게 감명을 주었다. 결의, 확고함, 흔들리지 않음, 변치 않음, 사랑, 지킴(순종), 흠없음. 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도록 요구 받는다면 그 당시의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는 친구가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완전한 모범을 세우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친구로서 자격을 갖추고, 그분께서 가능케 하신 축복을 받으라고 요구하신다. 요한 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앞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나니”(13절)

그분은 평범한 친구가 아니다.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 어린 소년이 말했다. 우리들 모두는 그 말이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 모든 것을 잃고서

익명

그림: 그렉 지 쇼켈슨

우리는 이 생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 즉, 가정과 가족과 물질적인 소유물 모두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가장 귀중한 것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나는 젊은 시절에 극심한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다.

때는 1983년이었으며, 나는 열 다섯 살이었다. 바로 그 한 해 전에 나는 복음을 알고 침례를 받았다.

우리 가족이 살았던 페루의 그 지역은 특별히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그 해 4월 20일 오후에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총과 다이나마이트를 들고 도시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와 형과 나를 포함하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속으로 죽게 된다면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테러리스트들은 돌이나 방망이나 또 다른 자기 방어용 무기를 지녔던 사람들을 모두 묶어놓고 기관총으로 쏘았다. 여자들은 남편과 형제와 아들들 때문에 울었다. 우리 어머니 역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셨다.

정확하게 한 달 후 그 테러리스트들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찾으려고 새벽 1시에 도시로 다시 왔다. 아버지는

우리 도시의 지도자였으며 그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대항하여 주민들을 조직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번에 그들은 우리 부모님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살해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 역시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서 자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덕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우리는 우박 섞인 폭풍우를 심하게 맞았지만 그것은 곧 약해졌다. 나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언덕 너머의 도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테러리스트 몇 명도 역시 그 언덕에 숨어서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박 때문에 아주



미끄러워진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였으며 기적으로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으며 보호를 간구하였다. 기도를 마쳤을 때 나는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놀라운 평화를 느꼈다. 나의 다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계속하여 달릴 수 있었다. 나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방금 부모님을 잃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내가 도망갔던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남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내가 당면했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다섯 명의 어린 동생들의 복지 문제였는데, 막내는 겨우 네 살이었다. 여러 주 동안 우리는 심한 굶주림을 겪으면서 숨어 지냈다.

그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인 리마로 갔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가장 큰 동생에게 나머지 동생들을 맡기고 집을 떠나왔는데, 그들에 대해 참으로 심하게 걱정하였다. 때때로 나는 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혈 사태가 계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종종 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산에서 언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다.

일자리를 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을 때 나는 고구마를 캐는 임시직을 얻었다. 나는 미성년자였고

적절한 서류가 부족했지만 신앙과 기도를 통해 결국 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동생들은 나와 함께 리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친척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우리에게 살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다른 분은 몇 가지 가정 용품을 주셨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유물들을 대부분 도둑맞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한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부모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예외없이 일과 가정의 허드렛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었다. 후에 나는 그 분들이 보여 주신 특별한 모범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내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했다. 상황은 내가 빨리 성숙해지도록 몰아세웠지만, 부모님은 가족과 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며, 나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주시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커다란 소망을 품었으며,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는다면 잃게 될 축복에 대해 종종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구세주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신 꿈을 꾸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특별한 평화와 확신의 느낌을 가졌다.

고용주는 내게 휴직을 허가해 주었으며, 나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다. 일

년 간 선교 사업을 하였을 때 동생이 편지로 고용주가 마음이 변해서 내가 귀환할 때까지 일자리를 남겨두는 것을 거절했다고 알려 주었다. 고용주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그 일자리를 잃는다면 주님이 더 좋은 일을 찾도록 도와주실거야."라고 답장을 썼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쳤다.

나는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동생들 중 누구도 심한 병을 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귀환했을 때 나는 동생들이 모두 잘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인봉되었으며, 나는 성전에서 아주 특별한 여성과 결혼하였다. 우리는 두 명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 가족은 아홉 명이 되었다.

그 외에도 나는 여러 가지 다른 훌륭한 축복을 받았다. 지금 나는 교회 직장에 고용되어 페루의 리마 성전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고 있으며, 성전 의식 봉사자로서도 일한다. 또한 나는 여러 해 동안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것은 내 생애에서 커다란 축복이었다.

감독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들을 가졌다. 이 부름과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확고한 희망을 품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그분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한다. □



물론 메시지

# 하늘의 관문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뒤로 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교리와 성약 110:7~9 참조)



# 독신 성인들에게





# 주는 권고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밤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능히 짐작하실테지만, 저는 온갖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자신의 염려와 문제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갖기를 갈망하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신의 인도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서른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점이 주님의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유일한 공통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한번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사람으로, 슬하에 자식이 있거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칠고 잔혹한 세상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에 치진 홀아비와 과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제각기 처한 환경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여러분이 모두 한 통속이라는 식으로 즐겨 꼬리표를

답니다. 그 꼬리표에는 독신이라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같은 행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사는 개체들입니다.

저는 말일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친밀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는 전능자요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지으신 교회로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음을 진실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주님께 도움을 얻고자, 우애를 구하고자, 곤경을 벗어나고자 매우 간절하게 간구함을 압니다. 여러분은 왜 자신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까하고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알게 됩니다. 감히 우리의 지혜로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때로 기도의 응답을 분간해 내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나 바램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대관장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겪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어찌 알겠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해

서 갖고 있는 감정조차 부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연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이해의 정신으로 그저 여러분과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 배우자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결혼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일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을 목표로 하여야 하겠지만, 불행하며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가장 부담스런 책임은 법적 이혼에 이은 성전 인봉 의식의 취소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례들이 각기 그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서 맺어진 영원한 축성을 지닌 성스러운 성약을 처리할 때, 저는 주님의 지시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혼이나 성전 인봉 취소 신청의 이면에는 이기심, 탐욕, 때론 본질적으로 가학적이기까지 한 행위, 학대, 비난, 비극 등의 장황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기혼자 중에는 극도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과 여러분만이 독신으로서 가슴에 사무치는 번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편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편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은 각자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저의 처지에 대한 교회 회원들의 둔감한 태도를 참아 와야 했습니다. 저는 직업상 미국 전역으로 이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역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형태의 환영과 받아들이는 태도, 즉 따스하고 친절 환영으로부터 매우 냉담한 무관심, 혹은 어떻게 저를 대할지 몰라 불편해하는 분위기 등을 겪어 왔습니다. 어느

와드에서는 회원들이 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 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더니, 떠나지 않을 성가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처럼, 마침내 소극적으로나마 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실례가 사실 그대로라면,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 회중이 함께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해야 할 영에 대한 모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형제 자매들은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 내의 거의 모든 와드에서 교육과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더할 수 없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과 교회 역원

들에게 모든 회원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혼이니 기혼이니 하고 분류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 똑같은 관심, 똑같은 배려, 똑같은 봉사 기회 등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신성을 인식함

우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 또는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독립된 개체입니다. 원하는 대로 생



각하고, 추론하고, 불행을 느끼는 우리의 역량은 서로 거의 같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 또한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감수성과 감성을 갖도록 형성된 객체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경이로운 속성을 타고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어느 독신을 위한 노변의 모임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아내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홀로 음반을 전축에 올려 놓고, 불을 끄고, 베에토벤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그렇게 앉아 음악을 듣는 동안, 어떻게 그와 같은 악상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대체로 나와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김새가 어땠는지, 곧 키는 큰지, 어깨는 넓은지, 머리 술은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가 우리들과 별다르게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도 배고픔을 맛보고, 고통을 느끼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 외에도 우리가 갖지 않은 문제들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감 받은 마음에서 우러난 천재성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세계의 청중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작을 창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이야말로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음성 등,

자신에 내재된 경이로움에 대해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어떠한 사진기도 인간의 눈에 비견될 만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통신 기구도 귀와 음성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펌프도 인간의 심장처럼 효율적이고 긴 수명을 갖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컴퓨터나 과학의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두뇌에 필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놀랄만한 존재입니다.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말하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그것을 복제하려는 가장 성공적인 시도조차 조잡한 점근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최절정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흑암을 가르시고,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며, 식물과 동물의 왕국을 이루시는 등, 이 모든 창조의 단계를 거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셨으며, 이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비하시거나 자신의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를 매력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의 황야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알려진 사도 바울은 작은 키, 콧마루가 높은 콧날, 구부정한 어깨, 우는 듯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별로 매력적이

지 못했으나 그의 마음과 정신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낼 수 없는 위대한 말들을 뿜어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따위의 행동을 탐닉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선함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축복과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

제가 무척 어렸을 때, 즐겨 불러지던 대중 가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소절이 나옵니다. "궁정적인 면을 강조하세요." 태도는 다른 어떠한 속성보다도 인격, 매력, 친화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7)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희망하는 독신 남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노력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 버리고 다른 활동에 열중한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전 "에비앙 보세요"라는 신문 사설란에 실린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자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인기를 모으는 관건은 친절하며, 정직하며, 세련된 감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답거나 잘 생기지 못했더라도, 단정한 몸가짐에, 옷을 세련되게 입고, 항상 자세에 신경을 쓰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십시오.

"건전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오. 머리가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훌륭한 운동 선수는 아닐지라도,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십시오. 무엇인가 한 분야에 월등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없으면, 악기 연주를 배우십시오.

“생각은 매이지 않도록 하되, 규칙을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친절한 말과 다정한 몸짓을 아낌없이 보이도록 하며, 독살스런 비난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행한다면, 커다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시카고 트리뷴, 1991년 3월 17일)

저는 모든 여성들이 훌륭한 남성, 곧 교제하고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하며, 그녀와 장차 태어나게 될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며, 그녀의 보호자요 힘이 되며,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반자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남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위안하고 격려하며, 읽고 사색하며, 자신은 물론 그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양성시키며, 속마음까지도 허심 탄회하게 나눌 수 있으며,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여성과 영원한 동반자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결혼이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결혼에는 상당한 아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자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서 오려 두었던, 켄킨스 로이드 존스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손을 잡고 애무해대는 수천명의 젊은 남녀들 사이에는 결혼이란 영원토록 젊고 멋진 남편이 영원토록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는, 사철 피는 접시꽃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집이라는 환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접시꽃이 시들 때, 권태와 청구서가 머리를 드리우면 이혼 법정이 꼭 들어칩니다....

[결혼에서의] 다시 없는 기쁨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강탈당했다고 소리치르며 분주히 뛰어들다니라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할 것입니다.

“대개의 퍼팅은 실패로 끝납니다. 쇠고기는 대체로 질깁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란 대개가 단조롭고도 지루합니다.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착되기도 하고, 매캐한 연기며 먼지, 재 등이 날리고,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아름다운 숲도 지나고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께 그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빅 룩 캔디 마운틴즈”, *데저렛 뉴스*, 1973년 6월 12, A4)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합시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이란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혼에는 전폭적이고 명백한 충절이 따라야 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돌

봄이 요구되는 동반 관계를 맺는 영원한 성약이어야만 합니다.

## 훌륭한 대의에 진력함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서 기회며 도전이며 후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외로움을 치유하는 최상의 치료제는 타인을 위해 일과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들을 도외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돕고, 격려하고자 손길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학업이 저조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만 있어도 어느 정도 희망과 쾌활함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비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연명해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자신의 번민과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5) 자신의 삶에 실증을 느낀다면, 참담한 외로움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힘겨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보십시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분보다도 비





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나 노인에게 글을 읽어 주거나,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도록 하십시오. 궁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 참으로 놀라운 보상을 가져오는 수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집무실로 유타 보이즈 랜취에서 발행된 공보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이크라는 소년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청소년 담당 법원

의 판사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아홉 살이었을 때, 빈 차에서 잠을 자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다. 어떠한 주정부 기관도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유타 보이즈 랜취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 보이즈 랜취는 이 소년의 삶을 수렁에서 구했다. 그들은 그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었고, 그에게 가치와 표준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환경과 세계가 변했으며 그는 현재 청소년 보호 감호 대상자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그 곳엔 또한 마이크의 편지도 실려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이크입니다. 전 고향에서 아주 불행한 아동을 보냈어요. 질나쁜 깡패들과 어울려 성장했어요.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전 아직 깡패들과 어울려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전 여기 온 것이 기뻐요. 이곳에서 크리스와 델파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겐



가족이 있고, 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유타 보이즈 랜취, 새로운 출발, 1996년 가을호, 1쪽)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싸매 주고 계 갈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선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은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큰 축복을,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충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 계속해서 배움

또한 기억해야 할 바는,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지 않는 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들의 저서를 읽고 공부하고 심취할 수 있습니다. 조수아 리브만 박사는 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종류의 일에 착수하고, 새로운 대의를 위해 헌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유능하나 또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덜 하며, 천재성은 드물지만 평범함은 우리들이 대체로 갖고 있다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숨겨진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

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참으로 놀랄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성을 향한 성장, 발달, 꾸준한 정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의 위대한 선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36)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느니라.”(교리와 성약 130:19),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리와 성약 131:18)

이 경전 구절들에는 참으로 장대한 도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명한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신학 연구원 대학부 강의, 평생 교육 강좌, 교육 주간, 또는 그 외의 다른 많은 기회들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건주어 보므로써 우리들 자신에게 내재된 거대한 능력의 보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 결코 늦은 법은 없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이것이 참됨을 믿습니다. 핑클리 자매와 저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80 중반의 부부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가 얼마나 왕성한 독서가인가 하는 점에 놀라곤 합

니다. 그녀는 하루에 두 가지 신문을 독파하고, 잡지를 읽고,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을 열렬히 공부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두꺼운 전기기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소제가 다양한 도서들을 섭렵하는 것보다 더 대화를 매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 게으르기를 그치라.”(교리와 성약 88:118~119, 124)

가장 훌륭한 책은 경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교회 잡지를 읽으십시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독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민하고 민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물론 여러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탐구함으로써 여러분의 말씨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돌림 병을 피하듯이 춘화를 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색서는 치명적인 병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불결한 언어를 피하고,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선정적인 잡지, 900 전화 번호 (외설 데이트 라인 전화 번호들), 인터넷에 뜬다는 음담 패설과 같은 자극적인 쓰레기들을 피하도록 하십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덕슨

시오. 이같은 외설물들은 여러분에게 백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파멸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독신 남녀간에 단 둘이서 먼 지역으로 함께 여행하는 관습이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관습은 위험 천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독신인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 극히 공격 받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불에 데지 않고도 불장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내면에 둔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타협을 유도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강철같은 자제력을 발휘하

도록 하십시오.

저는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때 이른 자유를 취할 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남자에게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 교회에서 봉사함

여러분 모두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모든 권유를 받아들여십시오. 주님의 이 영광스런 사업에 참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협조적이기

우리는 모두가 교회 봉사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각기 이 위대한 대의와 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전능자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게으른 자, 흑평가, 염세주의자 등이 함께 할 자리는 없습니다. 공과를 가르치십시오. 한 소년 혹은 소녀를 위대하고 훌륭한 남성 혹은 여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청하여 여러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생활 중에 갖는 조용한 순간



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깊이 새겨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이 아름다운 시기에 좋은 나라에 태어 났습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마음 속에 갖게 된 비교적 소수에 지나지 않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표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들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홀로 된 아버지나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름은 아주 깊습니다. 돈이 궁하고, 시간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와 이해와 성취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신 축복에 무릎을 꿇고 하염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과부나 홀아비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존경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아 왔고 수많은 경험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굳은 일, 좋은 일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비애와 고독과 두려움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송고한 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위안과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숙한 친절과 사랑으로, 비탄에 잠긴 사람을 어느 곳에서 발견하든지 도움을 손길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이 겪는 시련 외에 다른 것을 바라 보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잊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허락하는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하십시오. 것처럼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느낌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와 깊이 사귀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가족 역사 사업에 착수하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매료될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며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전 추천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정리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자격을 갖추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곳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실 때마다 여러분은 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넣고 다니는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을 일깨우는 보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대리 의식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더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만이나 자기 본위가 우리들 사이에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에서, 여러분이 신앙과 의 가운데 걷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행복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현세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갖게 되고, 세상의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

1906년 9월 22일,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에서 하신 말씀



#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사 모든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는 은사를 주시고”(교리와 성약 46:18)

**모**든 영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신의 권세로 주어지며 전달된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5)라고 가르쳤다.

## 지식은 기쁨을 가져다 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요한복음 17:3 참조)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자 충실히 구하는 자들은 “기쁨을 알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교리와 성약 42:61)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회의 어느 회원은 두 번째로 물문경을 읽고 있을 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약속된 기쁨을 얻었다. 처음 물문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가능한 한 빨리 책을 끝내려고 그는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로 읽을 때는 물문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려는 소망이 동기가 되었다.

“책을 읽고 있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읽은 것을 제 경험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나 저는 질책 당하는 느

김보다 오히려 사랑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 연구와 신앙으로 지식을 탐구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할 때 우리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고린도전서 2:11)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은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식과 간증을 제공한다. (고린도전서 12:3 참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고 권고하신 이유이다. 연구를 통한 학문에는 정신이 들어가고 신앙을 통한 학문에는 영이 들어간다. 이것은 암몬이 라모나에 왕을 그처럼 놀라게 한 복음 지식을 받은 방법이다. 암몬은 이렇게 말했다. “그 영의 일부분이

내게 임하시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신앙대로 내게 힘도 주시나이다.” (앨마서 18:35)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연구하며 공부하며 모든 양서를 통독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하기를”(교리와 성약 90:15, 88:79 참조) 기대하신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하이디 해리스는 물문경을 연구하고 싶었지만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며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끝냈을 때 맨 먼저 눈에 띈 것이 물문경이었다. “저는 물문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니파이일서 1장을 다 읽은 후에 저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습니다.”

물문경을 읽기 시작한 몇 주 후에 하이디는 학교에서도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는 여전히 학교 공부를 해야 했지만 경전 연구는 제게 특별한 힘을 주었어요... 저는 연구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인쇄심을 가지고 경전 읽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전 연구도 더 쉬워졌으며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졌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2월호, 13쪽)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지식을 증가시킬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지는가? □

그림: 캐롤 커틀러





# 새로운 와드에 적응하기

조앤 독시

우 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와드나 지 부의 주인입니다. 새로 이사 온 회원들과 방문자들과 구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말일성도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둘레에 사생활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넘기 어렵게 만들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은 우리의 모임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반갑게 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생각





하고 그들을 우리가 대접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2. 우리의 와드나 지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도움을 수도록 노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은 행복의 빛을 받해야 합니다.

3. 방문자들은 회원들이 친절하고 정답게 인사하고 환영하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비회원들은 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4.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다음의 권고는 오랜 친구에게 뿐 만 아니라 새로 안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친구들을 현상에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마음의 척도 [1991년], 114쪽)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네 땅 성문 안에... 객” (신명기 24:14)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베소서 2:19)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패트리샤 닐슨

여러 해 전에 남편이 승진을 해서 우리는 다른 주로 이사하였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지내는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전에 다니던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여러 번 이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와드에 나갈 때마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1. 사람들이 당신 옆에 앉아서 먼저 그들 자신을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2. 와드 회원들에게 이 지역에 오게 되어 기쁘고 그들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십시오.

3. 자매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4.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신권 정원회 지도자에게 방문 교육 담당자나 가정 복음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 보십시오.

5.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신권정원회 회장에게 자매님의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와드 회원의 이름을 물어 보십시오.

6. 자매님의 인생의 전환기인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전에는 시간이 없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몇 가지를 하십시오.

7.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언에 따르으로써, 저는 곧 저의 새 와드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변화에 편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준 제 친구인 이전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보여 준 사려 깊은 마음에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









# 정직하게 거래함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알려 주는 의의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앨런 브이 핑크

1971년 6월 초, 캘리포니아에서의 저의 의욕적인 군복무가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주디가 첫아기를 막 출산하고 이웃한 주에 있는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명명해 주고 축복을 주는 유아 축복을 하기 위하여 장인과 장모님이 참석하시는 와드의 각 가족들과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하기로 되어 있는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이었고 한편 저의 부모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예정이었습니다. 일요일 금식 간증 모임에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하기로 되어 있는 날 하루나 이틀 전에, 필요한 사무 처리가

제 때에 끝나지 못할 것 같으므로 다음 주 초까지 군기지에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실망스런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어떻게 예정대로 유아 축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제대 담당 인사과 직원에게 저의 곤란한 처지를 설명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유아 축복을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여전히 마음을 굳히면서,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빨리 제대하게 조치를 취해 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접촉해 볼까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제가 유아 축복을 주기 위하여 서둘러 제대할 수 있도록 뇌물을 준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습니다. 저는 유아 축복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삼 주 후에 저는 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대 뇌물 수수 사건의 증인과 혐의자로 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 동안 그 수사관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의 사진을 저

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에게 저의 제대 날짜가 연기되었음을 알려 주었던 사병 인사 담당하급 장교가 그 사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뇌물을 주었다라면, 저의 직업에서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고, 제 아들을 합당하게 축복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이래로 저는 의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게 (교리와 성약 121:45)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상기하곤 합니다.

매년 저는 성전에 참석할 수 있는 저의 합당성을 감독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직업상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업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회계 회사의 대표로서,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제 일도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가 부적절한 혹은 미심쩍은 업무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받을—혹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재정적인 축복은 땀 없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하려는 우리의 결의가 우리를 비탄 속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한 행위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사업 활동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동기의 결여, 상황에 따른 기회의 결여와 고결성의 결여.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있다면,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 저는 소년단 시절에 불에 대하여 배운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불은 연료, 산소, 열이 존재할 때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없앤다면, 불은 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생활에서 그 구성 요소의 한 가지 이상을 없애버림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 동기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혹은 그들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강조하는, 따라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끄는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은 우리의 주의를 보다 중요한 것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동기가

타락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에 선행되는 동기는 빚, 욕심, 도박, 혹은 마약과 알콜 중독 등과 자주 연관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큰 위험 부담 중의 하나는 일터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응하라는 압력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따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부정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잣말로 “여기에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혹은 “난 내 고용주가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이야” 혹은 “이 돈을 잠시 쓰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달의 급료로 지난 달의 청구서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이자 계산을 틀리게 하고 싶은 동기와 올바르게 하려는 결심 사이에서 시험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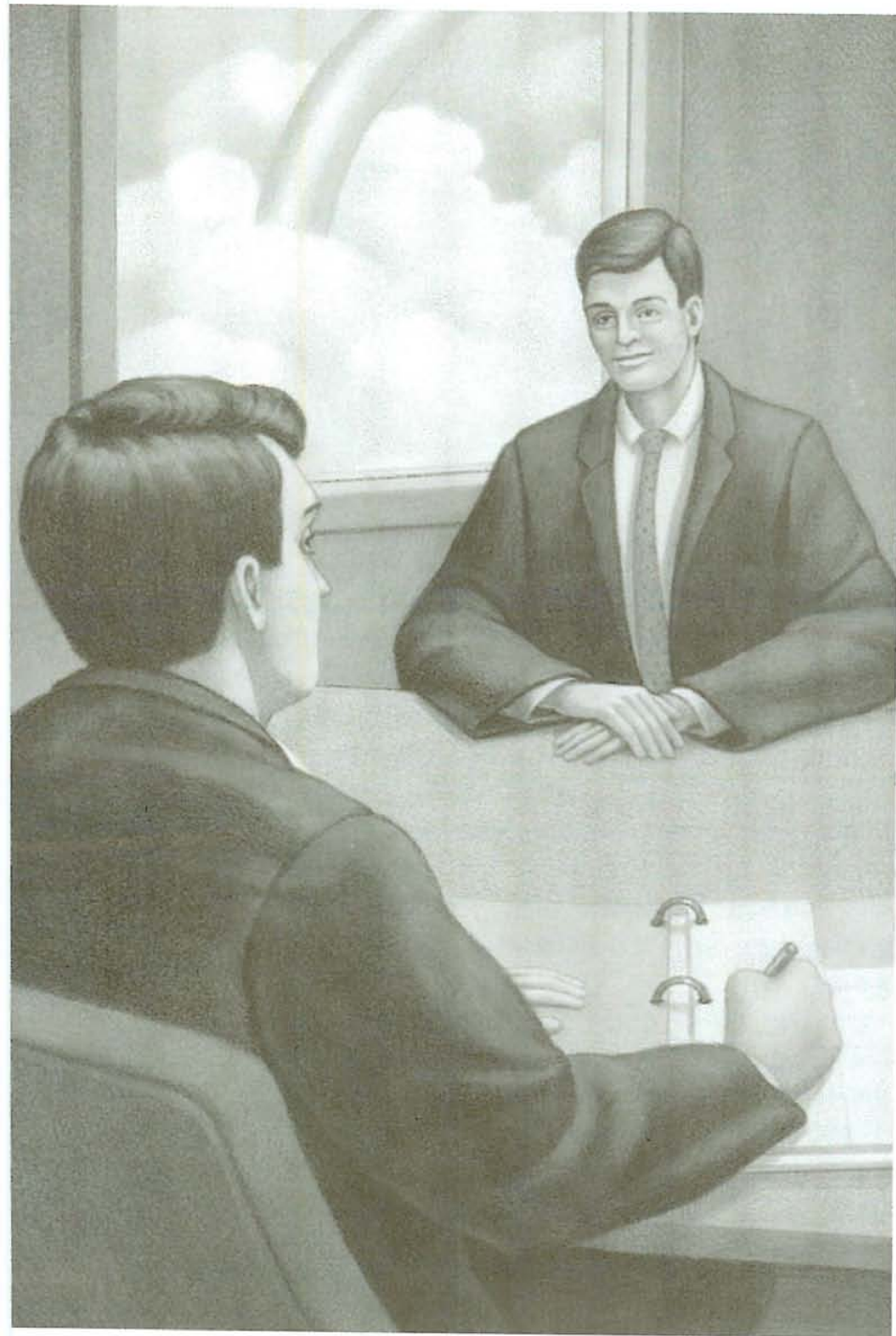
## 상황에 따른 기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때때로 유혹에 굴복합니다. 그 기회가 사람들의 윤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가진 특별한 회사의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일요일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는 평일에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의 유형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원리는 매일의 업무와 분리되거나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가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그는 그 회사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 년 동안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대가로 그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그 회사는 쓰러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억 달러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부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동료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잘못이 밝혀지면 손해를 보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옳은 일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실성과 신뢰





를 쌓을 수 있습니다.

### 고결성의 결여

고결성의 결여는 종종 합리화라는 미명으로서 나타납니다. 미심쩍은 거래 행위에 대한 가장 흔한 합리화는 “사업은

다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심쩍은 거래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 일인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누구에게도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위반 행위로 생각된다는 말입니다.(니파이서서 28:8; 교리와 성약 10:25~26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고결함이란 “순결함과 도덕적인 건전함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정직은 그것의 실체가 밝혀지며 자기 정당화라고 부르는 비뚜러진 양심을 배양해 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악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해로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속임수의 형태입니다.”(대회 보고, 멕시코와 중미 지역 대회, 1972년, 27쪽)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일주일이면 일곱 날에 우리가 되어야 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는 선행을 믿는다.”(신앙개조 13조)

### 탁월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함

저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매번 민첩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때때로 그러한 실수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때때로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잘못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그 잘못을 고칩시다. 우리는 대낮의 빛이 우리가 하는 일 위에 비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로마서 13:12~13)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하나님 아버지와 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에 두고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되도록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탁월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업에서 탁월함이란 통상적으로 이윤, 회사의 순수 총자산, 고객의 수, 주식 가격 등등의 점에서 금전적인 것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진정한 탁월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운 조건으로 측정되는 탁월함만이 영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대중 매체에서도 찬양한 적이 없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만 저는 저의 고모님이 하

신 진지한 노력을 생각해 봅니다. 고모님의 이웃 중 한 사람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은 종종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친구도, 가족도 없는 것을 알고 저의 고모님은 그녀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면서 자주 방문하여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 이웃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직 세 사람, 저의 어머니와 저의 고모부와 고모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도 저의 고모님은 직접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난 방법으로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의 고모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그 분의 관심사였습니다.”(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 작품 선집에서 [1982년], 543쪽)

### 정직의 모범을 보임

물론경 시대에 한 무리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진 열의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저들이 온전히 정직하고 매사에 올바르게 기 때문이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했기”(엘마서 27:27) 때문

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부름과 그들이 이해한 복음에 충실하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일성도는 진리, 명예, 유덕, 순결한 생활, 거래와 종교에서의 정직함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대회 보고, 1968년 10월, 122 쪽)라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말씀했듯이 오늘날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절대로 덜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손상시키는 희생을 치루면서까지 사업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의한 동기, 상황에 따른 기회,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진실하게 지키도록 영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원리에 진정으로 순종하면, 부정직하라는 유혹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닮을 내려 정착한다면(니파이일서 15:24; 힐라맨서 5:12 참조),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 부정직이 거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





# 압박감에서 해방됨

테레사 현세이커



**저**의 뇌가 지칠대로 지쳐서 저는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한 쪽을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저의 충혈된 눈을 비비고 책을 랑 덮어 버렸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났습니다. 학기 말 고사를 잘 치르고 싶었지만 저의 쿡쿡 쉬시는 머리에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저는 역사 교과서를 내려놓고 다른 역사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물론경의 표지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운데 엘마서를 펴고 밤 경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친 마음으로 아무 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쉬시던 머리가 깨끗해지며 따뜻하고 편안한 평화가 제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했지만 깨어있었습니다. 말씀들이

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 머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경전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전을 읽는 날마다 저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 저는 더욱 행복해졌고, 저의 가족이 더 좋게 보였고, 더욱 인내할 수 있고 더욱 만족해 할 수 있음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성령은 자주 저의 마음에 이야기를 해주며 저를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오는 이 영적인 경험은 경전에 쓰여 있는 말씀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임을 압니다. □





아래, 위에서부터 : 상파울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자매 선교사들;  
 브라질 레시페 보아 비아غم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스테이크 축복사  
 월슨 산체스 네토; 오른쪽: 브라질 상  
 파울로 타보오우 스테이크 페레이라 와드  
 감독 에두아도 나움; 맨 오른쪽: 엘살바도르  
 스테이크와 엘살바도르 북 스테이크  
 축복사를 겸하고 있는 에빌라시오 케발렌티  
 축복사 그리고 그의 아내 딜자;  
 맨 아래: 리우데자네이로



사진 촬영 : 돈 엘 살과 테이비드 미셸 브라질 지도: 팻 거버





# 브라질의 투도 뎀

흔히 브라질 사람들이 나누는 이 인사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인사말의 진실한 바램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나누는 브라질 말일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돈 엘 설과 데이비드 미첼

**질문:** 남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인가?  
**정답:** 브라질의 상용어인 포르투갈어이다. 남미의 거대한 나라 브라질의 인구는 그 대륙의 나머지 모든 나라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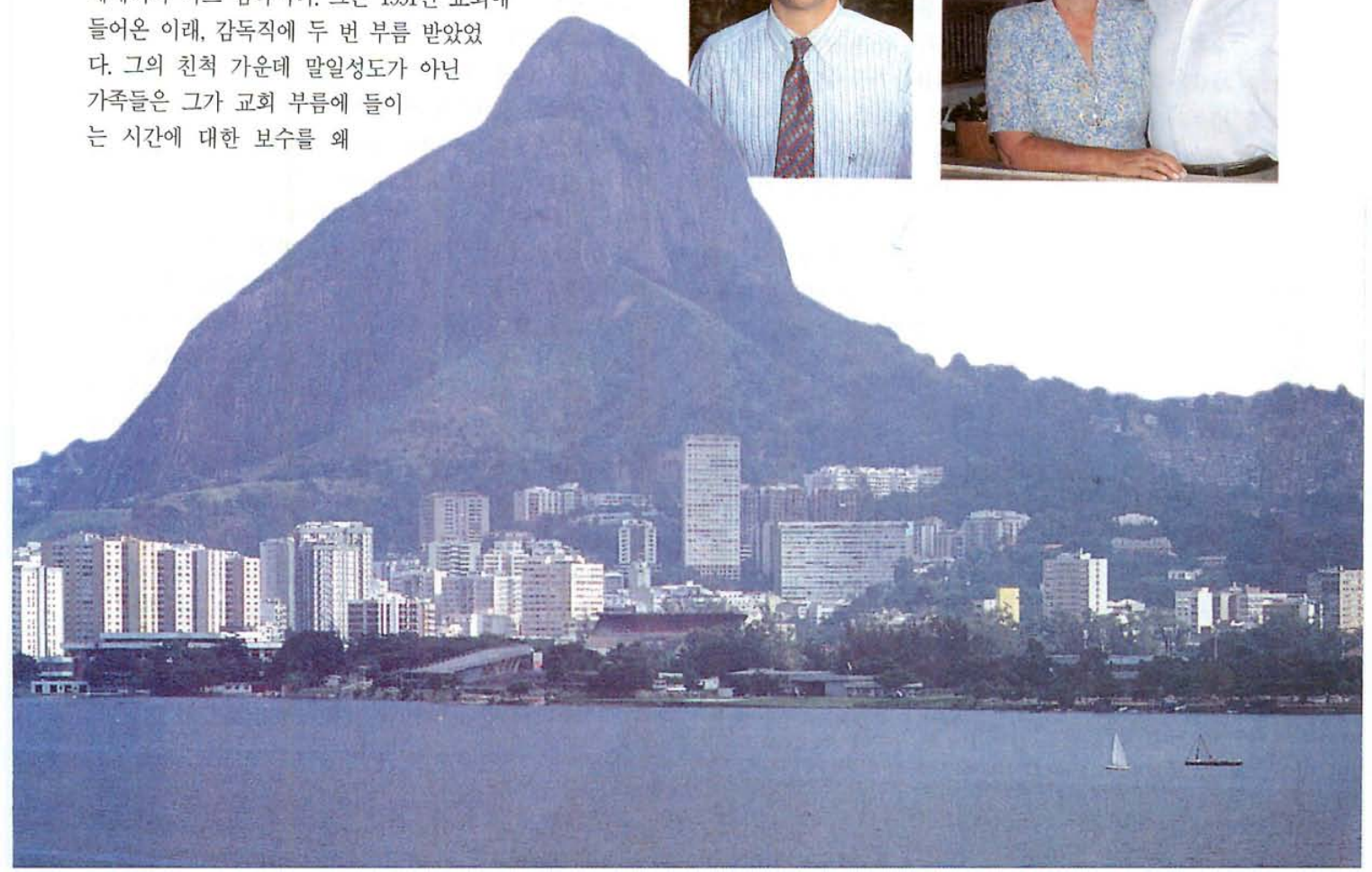
말일성도 회원수가 50만 명을 웃도는 브라질에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회원이 있다.(멕시코에는 약 75만명의 회원이 있다)

브라질의 에두아르도 나움 형제와 에빌라시오 케발칸티 형제는 이 나라에서 복음이 뻗어 나가는 성장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것과 일세대 개척자라는 것이다.

20대 후반으로 어느 기업의 중간 관리자인 에두아르도 형제는 현재 상 파울로 브라질 타보앙오 스테이크의 페레이라 와드 감독이다. 그는 1991년 교회에 들어온 이래, 감독직에 두 번 부름 받았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말일성도가 아닌 가족들은 그가 교회 부름에 들어는 시간에 대한 보수를 왜

받지 못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는 돌이켜 회상하며 이 같이 말한다.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 예수께서 진실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만한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일 것이다.

브라질의 아름다운 연안의 도시 상 파울로에서 북쪽으로 약 1,6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엘살바도르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16, 17세기에 수천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 들어왔







## 미래를 건설함

던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에는 엘살바도르 스테이크와 엘살바도르 북 스테이크의 축복사를 겸하고 있는 브라질 교회 개척자 에빌라시오 캐발칸티 형제가 있다. 그가 처음 복음 선교사를 만난 것은 1971년 엘살바도르에서 북쪽으로 50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마세이오에서였다. 그의 부인 캐발칸티 자매가 먼저 침례를 받고 그 뒤에 캐발칸티 형제와 그들의 자녀가 침례를 받았다. 이 가족은 침례 받은 지 1년이 안되어 엘살바도르로 이사하였다.

캐발칸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는 이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우리가 교회였어요. 1978년이 되어서야 지부가 조직되었고 제가 초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 사이에 캐발칸티 형제의 가족은 그들이 아는 데까지 복음대로 생활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전부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몰몬이라고 말하였지요.

“우리는 선교사일 거라고 생각되는 하얀 셔츠를 입은 젊은 사람들을 끊임 없이 찾곤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도시를 방문하는 교회 회원들과 더불어 집회를 가질 수가 있었지요. 당시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공식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였지요.”

캐발칸티 형제의 자녀들은 결국 네 명 모두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고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지금도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복음 선교사들이 브라질에서 최초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1928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 사이에서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포르투갈어판 몰몬경이 발행되었으나 전쟁 기간 동안 선교 사업이 중지되 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1966년에 브라질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나서부터 브라질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회원 수는 150개 스테이크에 6십만 명을 웃돌고 있다.

앞으로 브라질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도전은 아마도 급성장에 따른 운영 관리와 대응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브라질의 몇몇 집회소는 4, 5개 와드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선교사들이 보통 1개월 동안 침례주는 새로운 개종자 수는 1개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과거 2년간 침례 받은 개종자들 중 약 25%는 남성들이다. 브라질 지역 회장단은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충분한 경험을 쌓는다면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신권 지도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현재 칠십인의 일원이자 전 브라질 지역 회장이었던 달라스 앤 아치볼드 장로는 이같이 말한다. “침례주는 일과 영성을 쌓는 일 그리고 개종자를 유지시키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신중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가치있는 것의 직접적 접근 방법에 대해 남성은 여성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가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실제로 좋은 반응을 보인다.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교리를 가르칠 때 다음의 PAIS-F 원리에 입각하여 가르친다. 교회의 목적(*Propósito*)—현세에서 가정을 강화시키고 가족들이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함; 복음을 통해 참된 친구가 됨(*Amigos*); 사랑하고 돕는 사회적인 융합(*Integra*); 지혜의 말씀을 통한 건강 축복(*Sa de*); 가족의 영원한 결합(*Fam lia*). 참고로, 포르투갈어 'PAIS'는 '아버지(혹은 선조)들'을 의미한다.

아치볼드 장로는 브라질에서 새로운 개종자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은 건물 건축 방법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맨 아래서부터 한번에 한 층씩 콘크리트를 부어 콘크리트 바닥을 차례로 쌓아 올라간다. 이때 각 층마다 그 밑에 충분한



지지 장치를 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최소 21일 동안 그대로 놔둔다. 그동안에 콘크리트 바닥은 굳어져 "건고"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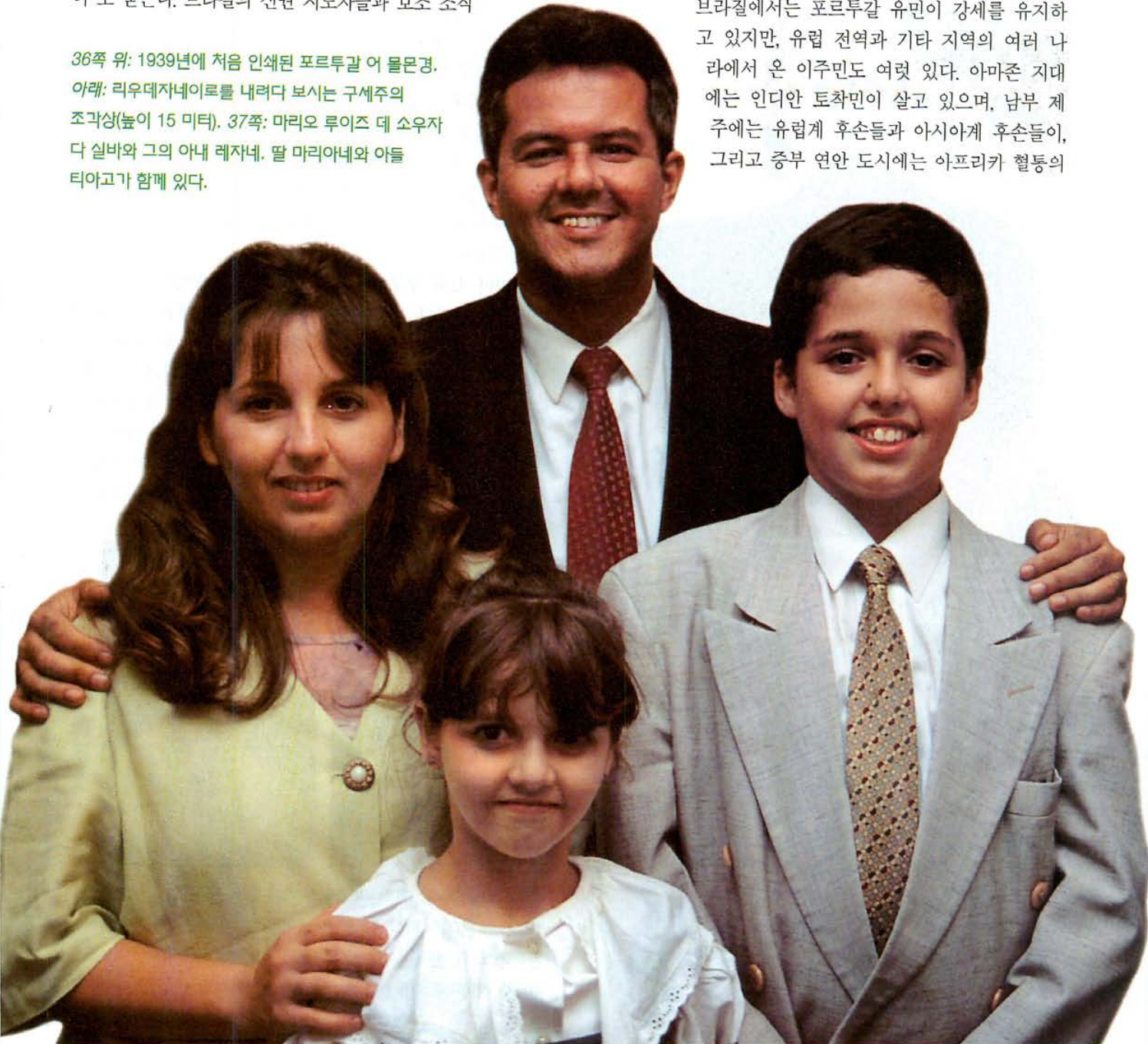
아치볼드 장로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새로운 회원이 '건고한(성숙된)' 회원이 되기까지 얼마만한 시일이 걸리느냐"고 묻는다. 브라질의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36쪽 위: 1939년에 처음 인쇄된 포르투갈어 물문경.  
아래: 리우데자네이루를 내려다 보시는 구세주의 조각상(높이 15 미터). 37쪽: 마리오 루이즈 데 소우자 다 실바와 그의 아내 레자네, 딸 마리아네와 아들 티아고가 함께 있다.

장들은 새로운 회원 가족이 성전에 들어가 인봉 받을 때까지 적어도 1년간은 가능한 온갖 도움을 주도록 요청 받고 있다.

###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 유민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전역과 기타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도 여럿 있다. 아마존 지대에는 인디안 토착민이 살고 있으며, 남부 제주에는 유럽계 후손들과 아시아계 후손들이, 그리고 중부 연안 도시에는 아프리카 혈통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거대 민족 집단인 일본계 주민들 가운데는 쿠리티마 타룸 스테이크 빌라 퍼벳타 지부에 소속하는 오토비오 형제와 세 쓰코 나가타 형제가 있다. 그들은 일본계 브라질인 2세대이다. 그들은 위로 2세대, 3세대 이내의 조상들이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살았던 수많은 브라질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가타 형제의 가족들은 자신들을 브라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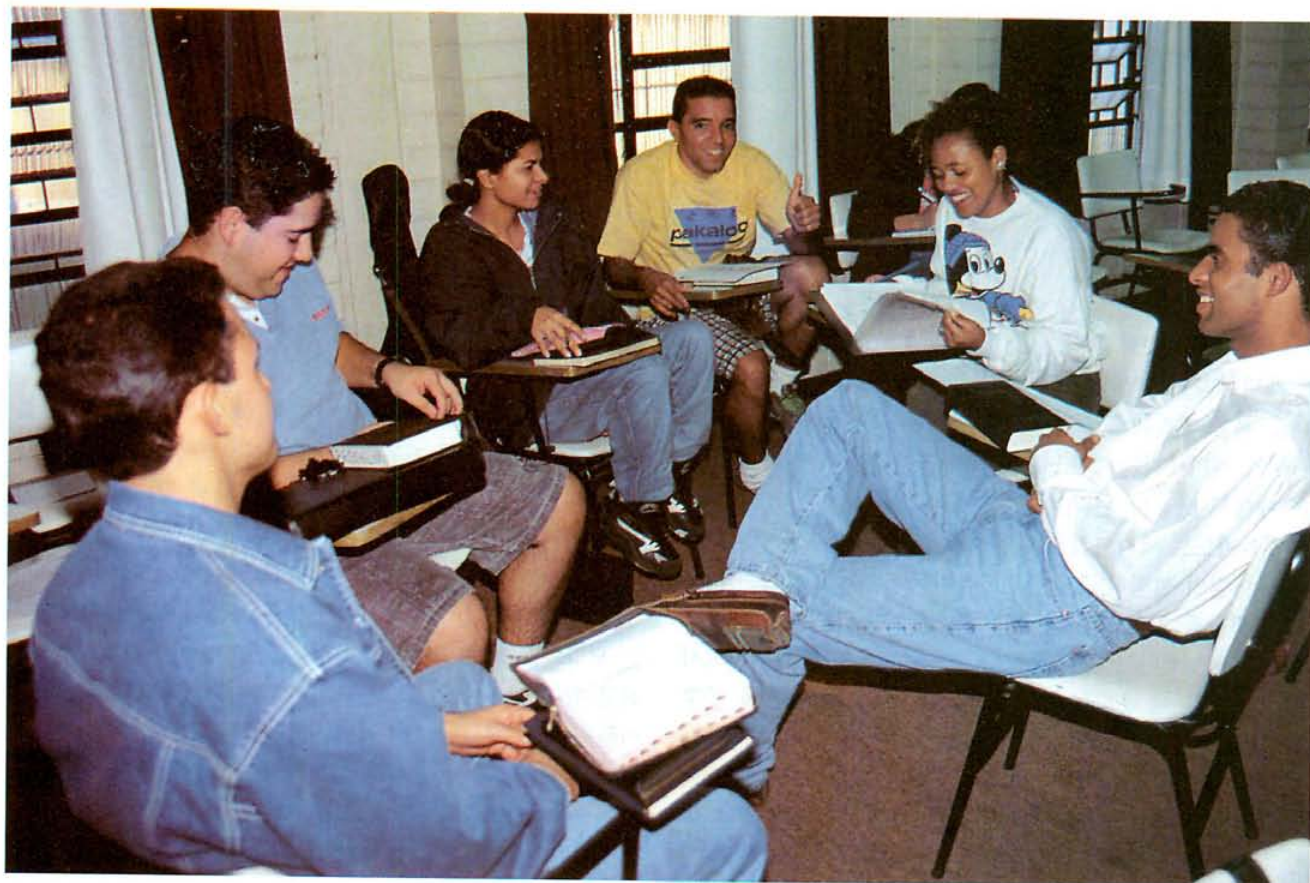
이에 대해 나가타 형제는 “우선 첫째로 우리는 말일성도 이지요”라고 대답한다. 그 다음이 브라질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의 생활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음의 유산, 일본 찻줄의 유산 그리고 브라질 문화의 유산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에 의해 축복 받고 있는 거라고 덧붙여 말한다.

나가타 형제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브라질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나가타 형제는 그의 결혼 생활 21년 중 16년 동안을 감독, 감독단 보좌 또는 지부장단으로 보냈다. 그의 아내인 나가타 자매는 돌아가신 자신의 부친과 조부님에 대한 영적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경험으로 성전 의식이 자신의 가족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가타 형제 부부는 복음이 자신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자녀들 - 스펜서, 하이럼, 캐밀러, 페트리시아—의 생



왼쪽, 위에서부터: 세미나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캠프, 브라질 동북부에서; 레시페 출신의 캠프 책임자 마시오 린하레스. 위, 왼쪽에서부터: 루셀레이 고날베즈 페레이라; 리우데 자네이루 식물원을 방문한 한 젊은이





### 상파울루 브루클린 신학 연구원 대학부의 구약성서반 학생들

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들에게 닳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브라질 회원들은 복음의 표준 생활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일요일 예배, 매일의 복음 공부,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과정, 강도 높은 보조 프로그램 등 교회가 권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힘을 얻고 있다.

브라질 동북 지역의 청년 캠프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시아 린하레스 형제(레시페 출신)는 캠프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삶에 하나의 축복이며 자신도 이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린하레스 자매는 이렇게 강조한다. "캠프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들은 같은 와드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한 집단의 일원이 됩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다른 와드의 말일 성도 청년들과 더불어 두터운 우정 관계를 형성한다.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도시 밖에 있다. 그 주 동안은 노상에서 거리낌 없는 행동과 부도덕한 일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브라질 청년 12,000 명과 청년 14,000 명이 카니발의 세속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멀리 떨어진 위치의 농촌 지역 캠프장에서 야영을 했

다.(금년은 교회의 개척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캠프 프로그램의 주제를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로 하였다.

리우데자네이로의 안테라 스테이크 티주카 와드에 속한 18세의 페난다 퍼레이라 산토스 자매는 신앙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브라질 청년들 중 한 사람이다.

그 자매는 때로는 복음의 표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파티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녀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곤 한다. 그러면 그녀의 학교 친구들은 빈정대는 말투로 "그래. 우리는 네가 꼬마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자신이 참석해도 안전할 거라고 여겨지는 어떤 특별한 파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자기 모친의 충고와 주일학교 공과 시간의 말씀을 듣고 그 파티에 참석하는 모험을 재고하게 되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인용되었던 성구는 그녀의 축복사의 축복문에 인용되었던 모사이야서 2장 41절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이들은) 하늘에 영접되(리라)"

페난다 자매는 새벽 세미나리 반에서 자신이 교재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질 경우, 복음대로 생활하고 건전한 활동을 하기가 더 손쉬워진다고 말한다. 이 자매는 전에는 자기 학교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근에 침례 받은 청년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는 페난다 자매가 그녀를 세



미나리에 초대해서 복음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다.

세미나리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도록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세속적인 일을 멀리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엘살바도르 세미나리 학생인 애너 크리스티나 샘파이오 자매는 이같이 말한다. “저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비회원 학생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런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가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지역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인 샌드로 쿠오텔장로의 말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는 지금 세미나리 정규 반에 참석하고 있거나 가정 학습반에 등록되어 있는 세미나리 학생들의 수가 약 400 명이고,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수는 약 500 명이다.

이들 학생들 가운데는 레이문다 모라에스 형제 부부의 다섯 자녀 주아다, 줄레닐다, 조이실레이드, 조나트, 지인도 포함되어 있다. 모라에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중 매일 밤 우리 가족 일곱 명이 차례로 교대해 가며 가정의 밤을 사회합니다.”

모라에스 형제는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이층 집 앞 도로면에 위치한 자신의 자동차 차체 수리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의 가족을 부양한다. 거실은 인도에서 몇 발자욱 떨어져 있는데 애완 동물들—즉, 손바닥 3개 크기의 원숭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살바도르 북 스테이크 에스 오 카에타노 지부에서 활동하는 모라에스 형제의 가족은 성전 방문 여행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모라에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자녀들 중 큰 아이들은 자기들이 번 돈에서 가능한 금액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의 가족이 저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집까지 5킬로미터의 거리를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기도 한다.

##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눔

브라질 말일성도들은 자기들의 이웃에게까지 손길을 뻗어 복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는 진리



위, 왼쪽: 조나트 모라에스, 그의 아내 레이문다, 그들의 딸들 주아다, 줄레닐다, 조이실레이드, 지인, 그들의 아들 호나타. 모라에스 형제가 자동차 차체를 수리하고 있다. 왼쪽, 위, 오른쪽: 샌드로 쿠오텔, 그의 아내 루시아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안드레, 레안드로, 다니엘라. 오른쪽: 페난다 퍼레이라 산토스



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웃들이 말일성도 가족에게 접근하여 이같이 말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이 새로운 교회에 다닌 후로 당신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시지 않겠어요?”

1996년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는 3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선교 전시회를 열었다. 그 전시회는 교회가 가족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상호부조회, 청년, 청년 혹은 초등학교의 각 공과 내용을 듣고 보고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반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스테이크 선교부장 노버토 칼로스 로페즈 형제는 당시 한쪽 다리 부상으로 목발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는 그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말 그대로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로 강충깡충 뛰어다녔다고 말한다. 약 616명의 사람들이 오픈 하우스를 통해 교회로 인도되었다. 그 후 선교사들의 침례 건수는 주주 동안 평균 하루 한 건 정도였다. 로페즈 형제는 많은 회원들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전시 행사를 도운 행동은 브라질 성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말한다. 그는 또 이같이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업을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누가 마음이 열릴지 모르니깐요.”

상파울루 같은 브라질의 대도시는 세계의 다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오피스 타워, 슈퍼마켓, 쇼핑 센터, 고층 아파트 등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 반면에 그런 대도시에도 판자집들이 짙게 들어찬, 소위 푸벨라스 판자촌이 있다.

마리아 레오폴디나 두 에스프 산토는 “푸벨라스” 판자촌 가장자리에 위치한, 한 조그만 집에 혼자 살고 있다. 그녀가 사는 집은 빈 상자와 쓰다 남은 건축자재를 모아 만든 매우 초라한 집이다. 몇 년전 마리아는 린디라는 푸벨라스 판자촌 주민 한 사람이 일요일마다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린디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묻다가 그녀에게서 교회에 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결국은 선교사들이 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도 안되어 마리아는 침례를 받았다.

마리아 자매는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세탁물을 맡아

일함으로써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파킨슨 병에 걸려 “정부에서 주는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녀는 자담 다스 팔마스 와드까지 언제나 혼자서 가지 못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상호부조회 자매님 몇 분이 나를 차로 데려다 주어요. 나는 찬송가를 좋아해요. 기도는 내 생활의 일부분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톨릭 신자를 두고 있는 나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마리아 자매는 자기는 이전의 다른 교회에서는 활동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같이 말한다. “그러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저의 간증은 확고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집회에 계속 참석할 거예요.”

직업이 소방수인 오제어 리베이로 형제는 현재 쿠리티바 바카쳐 스테이크의 과라이투바 와드 감독이다. 1990년 그의 부부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스테이크 부장단은 그 도시에 작은 규모의 말일성도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후로 이 단체는 성장하여 와드가 되었고 이 와드는 계속 성장하여 한 차례의 조직 분리를 했으며, 지금도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나 재분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1996년도에는 침례 건수가 일요일마다 평균 5 내지 8건이나 되었다. 오제어 리베이로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와드 회원 전원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는 2주마다 하루를 회원들이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데려오는 “수확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자 수확은 브라질 전국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아마존 지대 최말단 지역에서조차 행해지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아마존 강은 남미의 상당 부분을 서쪽의 안데스 산에서 동쪽의 대서양까지 길이 6,400킬로미터 코스로 분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귀의 강 폭이 145킬로미터나 되는 이 큰 강은 대서양으로 가는 선박들이 상류로 1,000킬로미터 가량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깊다.

생계를 아마존 강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호노라토 브루스 롤림 형제이다. 그는 이타코아티아라라고 하는 조그만 아마존 강변 읍에 소재하는 이타포랑가 지부의 한 회원이다. 직업이 어부인 롤림 형제는 자신이 복음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 후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롤림 형제는 자신이 복음의 그물망에 끌려들어간 셈이 되었다. 당시 다른 교회의 신도였던 그의 부인 닐자 자매는 남편의 그러한 시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존 강의 어부 호노라토 브루스 롤림과 그의 아내 날자. 그 옆에 이들의 방문객 엘리상겔라와 리디아네 오지키 벵티스타 그리고 아들들 호노라토, 유시네이, 헬리오가 있다.

날자 자매는 이같이 말한다. “당시 저의 친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경계하라고 저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들은 저의 남편이 이 교회에 가입하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저 역시 남편 따라 가입하면 저도 지옥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롤림 형제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부인과 아들들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다. 이타코아티아라는 자동차 차량이 비교적 적은 읍이다. 말이 끄는 수레가 상당히 많고, 버스는 읍 외곽을 순환하며, 자전거를 타기에는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걸어서 다닌다. 롤림 형제의 집에서 교회까지는 32 킬로미터 도보 거리이다.

롤림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만일 저의 처가 처음부터 걸어서 교회까지 가야한다면, 저는 들림 없이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를 단 한번 만이라도 교회로 데리고 간다면, 그녀가 영을 느낄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택시를 대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시 요금은 미

화로 7 달러였는데, 이는 제가 3개월 이상 저축하여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날자 자매는 남편의 사려 깊은 행동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회에 도착하자 내집 같이 편안함을 느꼈어요. 회원들을 대할 때에도 편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 아침에 제가 배운 복음의 지식은 과거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동안 배웠던 복음의 지식보다 더 많았어요” 얼마 안있어 롤림 형제의 아내와 두 아들 헬리오(14세)와 유시네이(8세)는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제 아들 호노라토도 역시 침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았다.

다른 많은 브라질 성도들이 그렇듯이 롤림 형제의 가족도 자기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선교사를 소개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간증을 기쁘게 나누고 있다. 이같이 친구들과 우정 증진을 통해 지금까지 최소 35 건의 침례 성과를 가져왔다.

이타코아티아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 매튜 코넬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롤림 형제 부부는 브라질 성도들의 한 표본입니다. 브라질 성도들은 복음을 나누기에 매우 열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원 가족은 서너 명의 비회원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 저와 저의 동반자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세 사람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보니



거기에는 우리의 대화 상대자가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매우 드문 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 회원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치볼드 장로는 선교사들이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구 5만 내지 20만의 도시가 허다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만일 브라질이 일부 다른 남미 나라와 같은 인구 비례로 선교부 수를 보유한다면, 이 나라에는 인구로 쳐서 족히 85개 선교부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있는 선교부는 23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추가로 필요한 인원의 선교사를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선교사 연령에 해당하는 4만 4천 명의 브라질 젊은 회원들 가운데서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은 약 3%라고 상파울루의 선교사 훈련원 원장인 제리 에프 트윗첼은 말한다. 목표는 선교사 수를 현재의 열 배로 늘리는 것이다. 선교사 증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은 금년 새로운 시설로 옮겼다. 기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연간 약 이천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은 그 여섯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은 아직도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림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그림은 브라질 최초의 스테이크 부장 월터에스피 티의 작품이다. 월터 에

스피티 스테이크 부장은 원래 50년 전 말일성도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다. (“월터 에스피와 최초의 남미 스테이크” 참조, 탐볼리, 1991년 3월호, 32쪽) 그림은 두 명의 선교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과, 매일의 봉사로 인해 구두창이 많아 생긴 구멍들을 보여 준다.

브라질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 약 40%는 브라질 태생의 사람들이다. 리우데자네이로의 안테라 스테이크 부장 돌리마 페건데스 배티스타 형제는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쌓은 경험은 장차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구 이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흔히 지도력이 문제가 된다. 배티스타 스테이크 부장의 스테이크 경계 내에는 약 4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주민은 재벌에서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있다. 브라질 경제는 변동이 매우 심해 때로는 중산층 회원들조차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험 있는 지도자가 그와 그의 가족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흔히 배치된다. 주님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이는 브라질에는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

아래, 위에서부터: “슈퍼 토요일” 모임에 참석한 세미나리 학생들; 자담 보타니코 와드의 복음 교리반. 오른쪽: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장로들





티스타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집중함

브라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성전에 참석하기를 몹시 원한다. 현재 브라질에는 상파울루에 한 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파울루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기숙사는 타 지방에서 성전을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값싼 호스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중하게 작성된 성전 활동 계획표에는 이들의 방문도 반영되어 있다. 성전 등록계원 서지오 카도소 문호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1년 전에 완 벽한 성전 활동 계획표를 마련해 둡니다.”

상파울루 성전은 주말에는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의식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몹시 분주하다. 그래서 각 스테이크의 성전 의식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스테이크별 의식은 토요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성전 방문 여행은 이 광대한 나라의 성도들 대다수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된다. 예를 들면, 월 평균 소득이 70 달러인 이타코아티아라 회원들은 스테이크가 대절할 여객선과 일련의 버스를 이용하여 성전 방문 여행을 하는데 성인 1인 당 250 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왕복 거리 6400킬로미터를 여행하자면 성전 활동에 바쳐진 그 주 시간을 제외하고도 2주일이 걸린다.

다행스럽게도 브라질에는 더 많은 성전들이 건립되고 있거나 건립될 예정이다. 상파울루에서 동북쪽으로 약 1,9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레시페 성전은 브라질 북부와 인근 나라들에 있는 수십 개의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원들에게 이용될 것이다. 금년초에는 상파울루 정 북쪽에 위치한 캠프나즈에 세번째 성전이 건립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브라질 교회의 성장을 생각해 볼 때, 성전 방문 여행은 이 나라의 성도들에게 계속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 브라질 성도들이 축복으로 간주하는 희생인 것이다. 아토스 엠 디 아모린 전 성전장은 인봉 의식을 받으러 가족을 따라왔던 소년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그 소년은 영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의식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헌물을 바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성전장한테 갔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손을 펴더니 방금 빠져나온 차아 한 개를 성전장에게 바쳤지요.”

브라질 쿠리티바 스테이크의 쿠리티바 제2와드 소속 어네스

티나 콘세익 도스 산토스 자매는 스테이크의 정기적인 성전 방문 여행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참석한, 올해 86세의 활동 회원이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뻥 다리를 치료할 동안 성전을 방문할 수 없었던 적이 서너 번 있었지만 그러나 목발을 짚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자 다시 성전에 갈 채비를 했었다. 성전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 회원들은 말일성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일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주님과 성약을 맺는 거예요.”

성전에서 맺은 성약이 없다면 거의 누구도 견뎌낼 수 없을 그런 시련에 부닥쳤을 때 성전에서 맺은 성약 덕택으로 힘을 얻는 회원들이 있다. 평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지닌 안토니오 에디슨 버로우켈 형제는 정부의 고속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쿠리티바 버커쳐 스테이크의 아와드 회원인 이 형제는 1988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의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들도 가까이 교회에 들어와 침례를 받았다. 버로우켈 형제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들의 피, 우리 가족들의 혈관 속에는 복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은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차량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버로우켈 형제 뿐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미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성전에서 그의 가족들을 자신에게 인봉하는 의식을 받았다. 그의 단정하게 다듬어진 턱 수염은 차량 사고에서 입은 흉터를 가리워주고 있다. 그의 영적인 상처는 영원한 진리가 치료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차량 사고가 일어났더라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가족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합당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복음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 회원들이 영적으로 소생하도록 도움

브라질에 곧 3개의 성전이 운영되리라는 사실은 그 곳의 회원들이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



나 브라질에도 그 밖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활동 촉진을 위해 사랑과 우정을 필요로 하는 비활동 회원들이 더러 있다. 브라질 지역 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현재 복음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의 재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선교 시간의 3분의 1을 할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목표는 도중에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성전에 참석하도록 돕는 데 있다.

회원의 재활동 촉진을 위해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로 마두레이라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 아킬레스 미구엘 데 올리베이라 형제는 자기 스테이크에서는 신권 정원회 개개인이 비활동 회원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회원 방문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비활동 회원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를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정원회 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경전을 읽고 가정의 밤을 하라고 격려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 비활동 회원 가족을 활동 회원 가족의 집에서 하는 가정의 밤에 초대하기도 한다. 그들의 목표는 선교사들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재활동화시켜 성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재활동화시키는 문제는 신증을 요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마두레이라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마리오 루이즈 데 소우자 다 실바 형제는 말한다. 회개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독은 문제 처리에 있어 "전적으로 영에 의존하여야



로버토 로조 필호, 그의 아내 실바나, 그의 자녀 라파엘과 안드레. 이들의 얼굴에는 상파울루 성전에서 한 가족으로 인봉 받는 기쁨이 나타나 있다. 갓난 아이 티아고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방약은 정확하여야 합니다. 양이 지나치면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적으면 병이 지속됩니다. 약을 얼마만큼 주어야 할지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바로 주님입니다.”

결과를 보는 것, 즉,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도와 그를 영적으로 되살아 나게 하는 것은 봉사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희생도 받게 되는 축복에 비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다 실바 형제는 말한다.

그의 말은 오늘날 브라질 전역에서 말일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브라질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 그와 동시에 브라질 교회는 전체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쿠리티바 출신의 스펜서 나가타 형제는 자기 나라는 지금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말씀했듯이 복음이 그의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일찌기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같이 크게 발전한 주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칠 것이라고는 딱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진 겸손하고 성실한 수백만 명의 충실함과 헌신 때문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6쪽) 브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치는 수많은 개인들의 헌신이 브라질 성도들의 가족을 성장시키며 강화시키고 있다. □

왼쪽: 페난도 브이 빈센트(니테로이 와드 소속) 위, 왼쪽에서부터: 아킬레스 미구엘 데 올리베이라 2세(아구아 브라카 지부), 어네스티나 콘세의 오 도스 신토스(쿠리티바 와드)





## 그들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함

**밀**턴 소아레즈 2세와 그의 아내 아이린은 레시페에 그들이 건설한 집을 방문하는 내빈들에게 친절한 안내역을 하고 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의 생애의 대부분을 건설 사업—영원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를 건설하는 사업—에 보내왔다. 교회는 이곳(레시페)에서 그들과 함께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말일성도 소책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이 소책자 안쪽 면에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선교사가 손으로 그린 것이다. 그들은 오래 사용한 교회 책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는 밀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이 그에게 전한 메시지—‘이 경륜의 시대에 레시페에서 최초로 침례 받은 사람’—가 쓰여져 있다. 날짜는 1960년 5월 15일이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밀톤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침례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밀톤의 아내인 아이린은 자기 남편이 처음에 복음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는 의심쩍어 했다. 그러나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옳은 것임에 틀림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필딩 스

미스 회장이 칠십인 에이 디오도르 터틀 장로와 함께 레시페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리에 대한 강한 증거를 스스로 받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우리가 배우고 있던 모든 것이 참되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예언자라는 사

실을 아는 느낌을 가졌어요.”

밀톤과 그의 아내 양가 가족들은 처음에 이들이 왜 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가입하려 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 부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신앙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밀톤 가족들의 교회에 대한 느낌은 긍정적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아내의 친정 부모 그리고 형제와 자

찬대에 가는 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그만 지부가 다른 집회소로 이사했을 때에는 밀톤은 침례당을 만들고 아이린은 침례복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조직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들어온 다른 수많은 브라질 회원들이 그랬듯이 밀톤과 아이린도 역시 자신들의 가족에게 복음의



브라질인 교회 개척자 밀톤 소아레즈 2세와 그의 아내 아이린. 아래, 오래 사용된 한 교회 책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다.



매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린은 자기 가 발견한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린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는 “교회에 들어온지 1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고참 회원으로 간주하였어요.”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아이린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교회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회를 위해 그녀가 맨처음 희생적인 봉사를 한 것은 성

씨앗을 뿌렸다. 또 다른 수많은 브라질 회원들의 가족들에게 그렇듯이 이들 부부의 모범은 그 뒤의 세대들에 가서 열매를 맺었다. 이들의 장남 이라즈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이라즈는 십대에 침례 받은 후, 곧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는 재미를 익혔다. 1966년에 그는 외국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최초의 브라질 장로가 되었다.(그는 칠레에서 봉사했다) 오늘날 이라즈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 교회와 함께 성장함

**매**타일드 펠버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브라질에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무렵 교회 회원이 되었고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한 자매이다.

브라질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은 원래 브라질 남부로 들어와 정착한,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 가운데서 활동하였다. 매타일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계 가문의 태생으로, 1938년 겨우 열 살이었을 때 선교사를 처음 만났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그녀의 부친은 마침내 자기의 아내와 딸들이 침례 받는 것을 허락했다.

매타일드 자매가 구도자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 있는 동안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러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했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는 당시 젊은 장로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와 더블유 엠 그랜트 뱅거터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

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타일드 자매는 사진 앨범에서 그들의 사진을 가리켜 그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매타일드 자매와 결혼한 남자 에노스 데 카스트로 듀스는 1952년에 침례 받기까지 5년간 집회에 참석하면서 교리를 주의 깊게 연구한 사람이었다. 그는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지부의 일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헌신할 것이 아니면 회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했던 것이다.

에노스 형제와 매타일드 자매는 함께 3 세대 동안 쿠리티바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도왔다. 매타일드 자매는 선교부와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그 밖의 다른 부름에서 7년간 봉사하는 등 교회의 각 보조 조직에서 지도자적 직책을 역임하여 왔다. 에노스 형제는 지부장을 네 번, 감독을 두 번 그리고 지방부장을 한번 역임하였고, 지부장단, 선교부장단, 스테이크 부장단에

서 보좌로도 봉사하였다. 그는 쿠리티바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체가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곳에 최초로 교회 건물을 세우는 문제를 놓고 건물 신축 계획에도 깊이 관여했었다. 에노스는 작년 후반기에 작고하였다.

매타일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교회가 매우 느리게 성장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침례주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모범으로서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회원들의 생활에서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어,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매타일드 자매는 어느 일요일 아침 이웃의 여인이 담 넘어로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을 자기 며느리가 보았을 때 일어났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싱긋이 웃는다. 그때 그 이웃 여인은 자신을 변명하기를 “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몹시 보고 싶어서요.”라고 말했다. □



매타일드 펠버 데 카스트로 듀스 자매와 그녀의 남편 에노스가 매타일드 자매의 소녀 시절에 브라질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의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유타의 미술가 에버렛 클라크 도오프 (1907~1984)는 말일성도들의 개적 일화들을 기초로 하여 일련의 벽화 크기만한 그림들을 독창적으로 그렸다. 화폭(300 X 150 cm)에 담아 놓은 이 유화는 유타 로간 스테이크 로간 제1와드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다.



# 브라질의 교회

브라질의 인구: 16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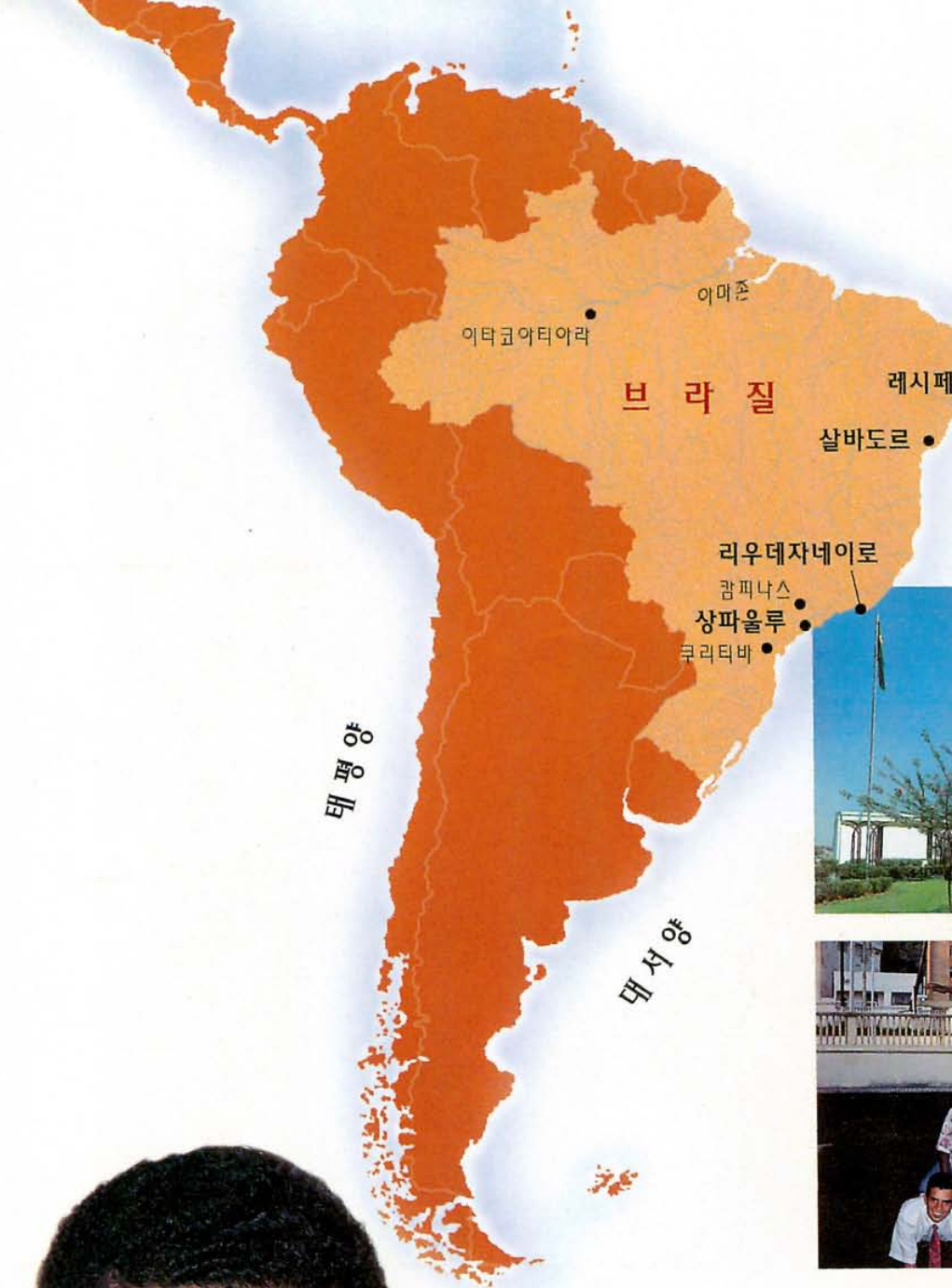
교회 회원 수: 601,000

스테이크 수: 150

선교부: 23

지방부: 43

성전: 현재 운영되는 성전 1(상파울루),  
건설중인 성전 1(레시페),  
건축을 발표한 성전 1(캄피나스)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젊은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학생들(위쪽)은 선한 모든 것을 뜻하는 브라질 인사  
투도 뱀에 따라 생활한다.(왼쪽)  
("브라질의 투도 뱀" 34쪽 참조)

